

## ‘都’의 배분성(Distributivity)과 망라성(Exhaustivity)

愼俊浩\*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都’의 배분성
3. ‘都’의 망라성
4. 맺는 말

### 1. 들어가는 말

#### 1.1 ‘都’의 양화 대상

본 연구는 ‘都’의 양화 현상과 관련된 양화 대상의 문제와 배분성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都’는 일반적으로 복수 명사구와 함께 출현하여 전칭양화사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아래의 예문에서 (1a)와 (1b)가 문법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전자의 예에서 ‘都’의 양화 대상이 복수 명사구인 ‘那些書’이기 때문이다.

- (1) a. 那些書, 張三都買了。  
그 책들은 장삼이 다 샀다.  
b. \*那本書, 張三都買了。

하지만 문제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아래의 예문은 단수 명사구인 ‘那本書’를

‘都’의 양화 대상으로 삼아도 아무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 (2) 那本書, 張三都看了。  
그 책은 장삼이 다 읽었다.

(1b)와 (2)의 예문을 비교해 볼 때, 차이점은 단지 서술어가 다르다는 점 뿐이다. 이런 차이를 통해 양화 대상의 적절성 여부는 명사의 수(數)뿐만 아니라 서술어와도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배분성의 문제는 아래 예문의 차이에서 볼 수 있다. (3a)와 (3b)의 차이는 ‘都’의 출현 여부인데, 이 때문에 전체 문장의 의미에서 역시 차이를 보인다. 즉, 전자는 배분적 해석(distributive reading)만이 가능하고, 후자는 배분적 해석과 집단적 해석(collective reading)이 모두 가능하다. 예를 들어 ‘他們’이 가리키는 대상이 철수, 영희, 영수이고, 그들이 각각 책 한 권씩을 샀다면 (3a)와 (3b) 모두 가능한 표현이지만, 만일 그들이 함께 책 한 권을 샀다면 (3b)만이 가능한 표현이다.

- (3) a. 他們都買了一本書。  
그들은 다 책 한 권을 샀다.  
b. 他們買了一本書。  
그들은 책 한 권을 샀다.

그런데 ‘都’는 아래의 예에서와 같이 집단적 서술어(collective predicate)와 함께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都’를 단순히 배분성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4)에서 ‘在一起’는 집단적 서술어구로서 항상 복수 명사구를 요구한다. 즉, ‘他們在一起’는 정문이지만, \*‘張三在一起’는 비문이 된다. 만일 ‘都’가 배분적 특성만을 갖는다면, (4)의 의미는 (3a)와 같이 배분적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의미 해석 과정에서 단수 명사구와 집단적 서술어가 결합한 명제가 도출된다. 예를 들어 ‘他們’의 구성원에 ‘張三, 李四, 王五’가 있다면, ‘都’의 의미

\* 高麗大 中文科 講師.

해석 과정에서 \*張三在一起, \*李四在一起, \*王五在一起 같은 명제가 도출되는데, 이 명제들은 모두 무의미하기 때문에, (4)의 문장은 사실과는 반대로 비문이 되어야 한다.

- (4) 他們都在一起。  
그들은 다 함께 있다.

(3)과 (4)의 예문의 관찰하여 볼 때, 배분성의 문제에서도 역시 '都'의 양화 현상이 양화 대상과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서술어와도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두 가지 문제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관련된 것이다. '都'의 양화 대상이 모두 배분이 가능한 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에서 '都'의 양화 대상은 단수 명사구인데, 이것을 어떻게 쪼개서 배분할 수 있는 지 의심스럽다. 본고에서는 이 문제를 토론해 보고자 한다. 또한 만일 이런 배분성이 '都'의 양화 현상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특성이 라면, 어떤 다른 특성으로 '都'를 설명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제 역시 본고에서 고민해 볼 것이다.

### 1.2 '都'의 특성

현재까지 '都'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구들에서 소개하는 '都'의 특성 몇 가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Cheng 1995 등 참고).<sup>1)</sup> 첫째는

1) '都'의 의미와 문법기능도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앞서 1절에서 살펴보았던 '都'외에, 다음 예문에서처럼 '已經'의 의미를 갖는 경우나 '連', '不管' 등의 단어와 호응을 이루어, 초점 기능을 갖는 경우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경우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 i) 飯都涼了。  
밥이 다 식었다.
- ii) 連一個人都沒有來。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

'都' 양화의 좌향 조건(Leftness condition)이다. 즉, 양화 대상이 반드시 '都'의 왼쪽에 출현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아래 예문에서 '都'가 복수 명사구인 '那些蘋果'를 양화한다고 할 때, 그 명사구는 (5a)에서처럼 '都'의 좌측에 출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5b)에서처럼 문장은 비문이 된다.<sup>2)</sup>

- (5) a. 那些蘋果, 我都吃光了。  
그 사과를 내가 다 먹어버렸다.
- b. \*我都吃光了那些蘋果。

둘째, '都'가 전칭양화사로 기능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작용역(scope)을 구축하여 다른 양화사 혹은 운용자의 작용역과 상호 영향 관계를 맺고 문장의 진리조건에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아래의 예문에서 '都'와 부정사 '沒(有)'는 계층 구조의 차이에 따라 작용역을 서로 달리한다. 즉, (6a)에서는 '都'의 작용역이 부정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심사위원 모두가 떠나지 않았다는 의미를 갖고, (6b)에서는 '都'가 부정사의 작용역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심사위원 중 일부가 떠나지 않았음을 표현한다.

- (6) a. 評審委員都沒有離開。  
심사위원이 다 떠나지 않았다.
- b. 評審委員沒有都離開。  
심사위원이 다 떠난 것은 아니다

작용역과 관련하여 '都'는 양화 대상이 되는 수량사구를 압도하는 경향이 있

2)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는 '都'가 오른쪽 성분과 관련을 맺는다는 견해가 있다(呂叔湘等編著 1980 등). 그러나, 徐杰(1985), 蔣巖(1998) 및 Shin(2007)에서는 다른 견해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Shin(2007)에서는 '都'의 양화 대상은 의문사가 아니라 전체에 포함되는 개체들의 집합이라고 주장하였다.

- i) a. 你都買了什麼?  
무엇무엇 샀어요?
- b. 他都吃的饅頭。  
그가 먹은 것은 다 만두이다.

다. ‘每個’같은 수량사구 역시 전칭 양화사의 기능을 하지만 문두에 나올 경우 대부분 ‘都’와 함께 출현하며, 또한 이때 작용역은 ‘都’가 대신한다. 예를 들어 다음 예문은 전칭 양화사와 존재 양화사간의 작용역이 포함 관계에 따라 의미를 달리 하는데, ‘每本’은 계층구조상 가장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작용역을 갖지 못하고, 대신 ‘都’가 전칭 작용역을 갖고 존재 양화사구 ‘一個人’의 작용역과 상호 포함 관계를 맺는다.

- (7) a. 每本書都有一個人買了。  
 매 권마다 다 어떤 사람이 샀다(사갔다).  
 b. 每本書有一個人都買了。  
 어떤 사람이 매 권마다 다 샀다.

마지막으로 앞 절에서 이미 언급한 배분성을 ‘都’의 특성으로 꼽을 수 있다. 문장의 의미를 배분적 해석으로 제한하는 기능 때문에 어떤 연구에서는 ‘都’를 배분 표지(distributive marker)라고도 한다(Lin 1998 등 참고). Li, X. (1997)와 Xu (1997) 등에서는 ‘都’를 기능범주로 분류하여, 구구조에서 배분구(Distributive Phrase)를 설정하기도 한다.

본고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2절에서는 ‘都’의 특성을 배분성으로만 본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都’의 양화 대상이 복수 명사구와 단수명사구인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이들 명사구와 서술어의 관계, 그리고 이 관계에 의해 표현되는 사건의 수와 관련지어 설명할 것이다. 3절에서는 ‘都’의 망라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Zhang(2009)에서 소개한 망라성의 개념과 Zhang(1997)에서 소개한 측정가능성의 개념을 정리하고, 측정가능성을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都’ 양화 대상의 적절성 판정 기준을 마련해 볼 것이다. 4절에서 이 논문을 맺는다.

## 2. ‘都’의 배분성

### 2.1 단수명사구와 배분성

1.1 절에서 집단적 서술어가 출현할 때 ‘都’의 배분적 특성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했고, 단수명사구가 ‘都’의 양화 대상이 될 때 배분성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 절에서는 이 문제를 자세히 토론해 보고자 한다. 즉, (2)에서 보이는 양화 현상을 ‘都’의 특성 중의 하나인 배분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토론해 보고자 한다.

- (2) 那本書, 張三都看了。  
 그 책은 장삼이 다 읽었다.

만약 이 예문에서의 ‘都’도 ‘那本書’를 배분한다고 한다면, 이 단수 명사구는 부분으로 쪼갤 수 있는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都’를 배분 표지로 본 Lin (1998)에서는 위 예문에서의 ‘書’같은 명사를 부분-전체 구조를 지닌다고 보았으며, ‘都’는 부분-전체 구조를 갖는 모든 개체를 배분한다고 주장하였다. 蔣嚴 (1998)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 예를 들어 ‘一個饅頭他都吃了.’(蔣嚴 1998:16, (49)) 같은 문장에서 ‘饅頭’는 작은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또한 동사 ‘吃’의 의미에서 만두를 분할하는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의미/화용 정보를 통해 우리는 만두 한 개가 각 부분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집합은 ‘都’의 양화 대상이 된다.

1.1 절에서 (1)과 (2)의 예문을 비교하며 잠시 언급했듯이, 명사(구) 자체를 보고 부분으로 쪼갤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반드시 서술어의 의미와 관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즉, ‘買’같은 서술어의 목적어로서 ‘書’는 일반적으로 권 단위로 ‘買’의 동작이 실현되므로 단수 개체는 부분으로 쪼갤 수

없는 것이 되지만, '看'같은 서술어의 목적어로서 '書'는 쪽, 장절 등등 여러 방식으로 '看'의 동작이 실현되므로 단수 개체라 할지라도 부분으로 쪼갤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1) a. 那些書, 張三都買了。  
그 책은 장삼이 다 샀다.
- b. \*那本書, 張三都買了。

張誼生(2003)에서는 (8)과 같은 예를 들어 '都'의 출현 여부가 서술어의 의미에 달려있음을 보여주었다. (8)에서 단수 명사구인 '這個字'와 '看'의 관계가 통사적으로는 (2)의 '那本書'와 '看'의 관계와 동일하지만, 이 예문은 (2)와는 달리 비문이다. '這個字'가 일반적으로 '看'의 행위와 관련하여 부분으로 쪼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都'의 양화 대상이 될 수 없다.<sup>3)</sup>

- (8) \*這個字, 他都看了。

이상의 토론에서 우리는 단수 명사구도 서술어의 의미와 관련하여 부분으로 쪼개질 수 있는 것이라면 '都'의 양화 대상이 됨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단수 명사구도 역시 배분적 해석이 가능할 수 있으리라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 단수명사구도 부분의 합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정확히 어떤 특성을 갖는가? 둘째, 단수명사구도 '都'의 배분적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복수명사구와 동일한 분포를 가질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복수명사구가 출현하여 정문 혹은 비문이 되는 환경에서 단수명사구로 치환하여도 똑같은 적합성 판단이 유지될 수

3) 여기서는 '일반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어떤 특정한 상황 혹은 화자의 인지 차이에 따라 이 예문은 정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글자가 아주 크거나 아주 복잡한 경우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都'를 쓸 수 있을 것이다. 또 일반적인 크기의 글자라도 어떤 화자는 몇 부분으로 나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都'를 써도 이 예문은 정문이 될 것이다.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를 생각해 보자. 앞서 살펴본 蔣巖(1998)의 논증에서 '饅頭'는 작은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또한 동사 '吃'의 의미에서 만두를 분할하는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의미/화용 정보를 통해 만두 한 개가 각 부분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본고에서 의문을 품는 점은 '작은 부분'의 특성이다. 이 '부분'들은 '饅頭'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으므로 동질의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부분을 각 개체로 볼 수 있는지가 의심스럽다.

만일 이 부분을 '饅頭'의 각 개체로 본다면, '一個饅頭'는 문법형태상으로는 단수이지만, 의미상으로는 복수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都'의 양화해석은 의미와 더욱 관련이 깊은 것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서술어가 동일한 언어 환경에서 단수명사구와 복수명사구의 출현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래의 예문은 이런 가정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준다.

- (9) 一個饅頭, 我都吃了。  
만두 한 개를 나는 다 먹었다.
- (10) a. 那些饅頭, 我都吃了一半。  
그 만두는 내가 다 절반(씩)을 먹었다.
- b. \*一個饅頭, 我都吃了一半。

(10a)와 (10b)에서 서술 어구는 모두 '吃了一半'이다. (10a)에서 '那些饅頭'는 각 개체가 '一個饅頭'라고 볼 수 있고, 이 각각의 만두에서 '절반을 먹었기' 때문에 '都'의 배분적 해석은 아무 문제가 없다. 만일 (10b)에서 '一個饅頭'가 작은 부분들의 합이라면 이 각각의 작은 부분에 대해 그것의 '절반을 먹었다'는 해석은 문제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10b)는 가정과는 달리 비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단수명사구의 각 부분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더 이상 쪼갤 수 없기 때문에 '절반을 먹었다'는 표현과 함께 쓰일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10b)가 비문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첫째 ‘조깅 수 없는’에 대한 이론적 정의 문제와, 둘째 그런 부분들이 특정 서술어와 의미상 결합할 수 없는 경험적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과연 ‘조깅 수 없는’ 상태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사람들이 인지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추상적인 것을 일컫는 것인가? 아니면 과학적인 근거로 정의를 내려야 하는가?

정의를 어떤 식으로든 내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다음 예문에서 ‘操場’을 더 이상 조깅 수 없는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都’의 배분적 해석에 따라 각 부분은 서술어구 ‘跑完’과 결합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조깅 수 없는 공간 혹은 거리를 과연 ‘달린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跑’의 의미 특성상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그 의미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都’의 배분적 해석에서 도출되는 각각의 명제들은 현실 세계에서는 무의미한 것일 수밖에 없다.

- (11) 操場, 他都跑完了。<sup>4)</sup>  
그는 운동장을 다 뛰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 즉 단수명사구와 복수명사구는 동일한 분포를 보이는 지를 살펴보자. 위의 (10)에서 이미 두 명사구의 분포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동일한 서술어구가 포함된 언어 환경에서 복수명사구가 출현한 예문인 경우에만 정문이 되고 단수명사구가 출현한 예문은 비문이 되었다. 아래의 예문도 동일한 현상을 보여준다. (12)에서처럼 서술어구가 진행상을 포함할 때, 그리고 (13)에서처럼 시간을 표현하는 보어가 출현할 때, 명사구의 수는 정문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두 예문에서 모두 단수명사구가 출현한 경우에만 비문이 되고 있다.

- (12) a. \*那本書, 他都在看。

4) 이 예문에서 ‘都’는 양화 기능 외에 ‘이미’라는 뜻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장은 중의적이다. 본고에서는 그 중 양화 기능의 의미만을 고려한다. 한국어에서도 ‘다’는 ‘이미’나 완료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지만, 예문 번역에서의 ‘다’는 운동장 전체를 양화 대상으로 삼는 양화사이다.

- b. 那些書, 他都在看。  
그 책들은 다 그가 보고 있는 중이다.
- (13) a. \*那本書, 他都看了三個小時。  
b. 那些書, 他都看了三個小時。  
그 책들은 다 그가 세 시간 동안 읽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단수명사구는 ‘都’의 양화 대상으로서 복수명사구와는 달리 배분적 해석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다음 절에서는 이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3절에서는 ‘都’가 배분적 특성 외에 망라적 특성을 갖고 있어서 단수명사구와 함께 출현할 수 있음을 설명하겠다.

## 2.2 명사의 수와 서술어

‘都’의 양화 문장에서 단수명사구가 배분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이유를, 본고에서는 명사구의 수와 서술어의 관계, 그리고 사건(event)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고자 한다. 복수명사구는 본래 개체들로 구성된 집합으로 서술어와 관련하여 개체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에 반해, 단수명사구는 원래 하나의 개체이며 서술어의 의미를 통해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다. 1.1 절에서 보았던 예문 (3b)와 (4)의 변형 형태, 즉 ‘都’가 출현하지 않은 경우인 (4)’를 보도록 하자.

- (3) b. 他們買了一本書。  
그들은 책 한 권을 샀다.
- (4)’ 他們在一起。  
그들은 함께 있다.

대명사 ‘他們’은 복수 개체를 지시하는데, (3)에서 비집단적 서술어인 ‘買了一本書’와 결합할 때는 배분적 해석과 집단적 해석이 모두 드러나지만, (4)’에

서 집단적 서술어 ‘在一起’와 결합한 경우는 집단적 해석만 가능하다. 서술어의 의미에 따라 복수명사구는 각 개체를 분리하여 혹은 통합하여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예문에 ‘都’가 출현하는 경우의 의미를 살펴보자.

- (3) a. 他們都買了一本書。  
그들은 다 책 한 권을 샀다.
- (4) 他們都在一起。  
그들은 다 함께 있다.

위의 예문에서 (3a)는 배분적 해석만 가능하고, (4)는 집단적 해석이 그대로 유지된다. ‘他們’은 비집단적 서술어에 의해 배분적 혹은 집단적 해석이 모두 가능하지만, (3a)에서는 ‘都’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他們은 그 성분 개체가 분리되어 해석된다. 반면 집단적 서술어에 의해 집단적 해석만 가능한 경우, 아무리 ‘都’가 출현한다 하더라도 ‘他們’의 개체는 분리되어 해석되지 않는다. 이 언어 현상을 놓고 볼 때, ‘都’의 배분적 특성은 복수명사구가 서술어에 의해 개체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단수명사구의 경우를 살펴보자. 아래에 앞 절에서 본 예문 (2)와 그것의 변형 형태인 (2)’를 들었다. ‘都’가 출현하지 않은 (2)’에서 ‘那本書’는 원래 하나의 개체이기 때문에 배분적 혹은 집단적 해석이 가능하지 않다. 단지 서술어 ‘看’의 의미를 통해 그 개체의 부분이 인식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都’가 출현한 (2)에서도 배분적 혹은 집단적 해석이 가능하지 않고, 단지 그 개체의 부분이 인식되는데 ‘都’에 의해 그 부분들이 남김없이 인식이 된다. 그래서 이때는 ‘都’의 배분적 특성이 드러나지 않고, 다음 절에서 설명할 망라적 특성이 드러난다.

- (2) 那本書, 張三都看了。  
그 책은 장삼이 다 읽었다.
- (2)’ 那本書, 張三看了。  
그 책은 장삼이 읽었다.

위에 언급한 설명을 (10a)와 (10b)의 적법성 차이에 그대로 적용시켜볼 수 있다. 이 예문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吃了一半 (절반을 먹었다)’라는 서술어구는 분리 가능한 개체를 대상으로 삼는데, 이 표현을 통해 온전한 하나의 개체에서 절반에 대해 인식이 가능해진다. (10a)에서와 같이 복수명사구가 출현한 경우, ‘都’에 의해 배분적 해석이 이루어지더라도 복수명사구의 각 개체는 분리 가능한 온전한 하나의 개체가 되기 때문에, ‘吃了一半’과 결합해도 그 개체의 절반에 대해 인식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문장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10b)에서는 단수명사구가 출현하여 배분적 해석보다는 망라적 해석을 요구하는데, 서술어구에 의해 명사구는 부분, 정확히 말해서 ‘절반’으로 인식되지만, ‘都’의 망라적 특성에 의해 인식되는 부분이 전체에 미쳐야 한다는 점과 충돌한다. 따라서 (10b)는 비문이 된다.

‘都’가 출현한 문장의 의미를 사건과 관련지어 본다면, 복수명사구와 단수명사구의 차이를 더 분명히 파악할 수 있고, 특히 진행상과 시간 보어의 출현에서 보였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예문 (3a)는 배분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他們’의 각 개체가 ‘책 한 권을 산’ 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사건으로 구성된 것이다.<sup>5)</sup> 반면 (4)에서는 ‘他們’이 하나의 집합으로서 ‘함께 있기’ 때문에 단일 사건으로 구성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단수명사구가 출현한 예문 (2)에서도 하나의 개체인 ‘那本書’를 ‘본’ 것이기 때문에 단일 사건으로 구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때의 ‘都’는 배분적 특성을 갖고 있지 않다. 배분성이 사건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음 예문에서 보여주는 적법성의 차이는 이 관계를 바탕으로 풀어갈 수 있다.

- (12) a. \*那本書, 他都正在看。  
b. 那些書, 他都正在看。  
그 책들은 다 그가 보고 있는 중이다.
- (13) a. \*那本書, 他都看了三個小時。

5) 이러한 이유에서 Huang(1996)은 ‘都’를 여러 사건을 하나로 묶는 ‘총합 운용자(sum operator)’로 보았다.

- b. 那些書, 他都看了三個小時。  
그 책들은 그가 다 세 시간 동안 읽었다.

(12b)와 (13b)에서는 복수명사구가 출현하여 ‘都’에 의해 배분적 해석이 이루어진다면 다중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세 시간 동안 이어진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와 반면에, 단수명사구가 출현한 (12a)와 (13a)에서는 단일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sup>6)</sup> 이 사건의 시작점과 종결점을 어떻게 결정하며, 사건의 내부구조를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예문 (2)를 살펴보면 언급했듯이, ‘都’는 서술어에 의해 부분으로 인식되는 개체에 대해 그 부분을 남김없이 망라하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那本書’와 같은 단수명사구와 ‘都’가 함께 출현하는 경우, 사건의 시작점은 ‘那本書’의 처음 부분을 ‘보는’ 것이고 종결점은 마지막 부분을 ‘보는’ 것이 된다. 그런데 (12a)에서는 사건 내부 구조 중 어느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진행상이 출현하여 사건의 시작점에서 종결점까지 전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12a) 문장은 적법하지 않은 표현이 되고, (13a)에서는 사건의 시작점과 종결점이 ‘세 시간’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 문장 역시 비문이 된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都’의 배분성은 복수명사구에만 적용이 되고 단수명사구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단수명사구의 경우 서술어에 의해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그 부분이 ‘都’에 의해 배분되어지는 것은 아니며, 서술어와 명사구의 조합이 표현하는 사건이 단일한 것임을 고려해 볼 때 이때의 ‘都’는 단수명사구의 모든 부분이 남김없이 인식되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의 주장은 Lin (1998)의 주장, 즉 단수 명사구의 경우에도 역시 배분성이 나타난다는 주장과는 대치된다. 반면 Zhang (2009)에서 주장한 ‘都’의 망라성은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都’의 특성을 잘 설명해줄 수 있다. 다만 Zhang의 주장 중에서 ‘都’가 원래 배분적 특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 특성은

6) 張誼生(2003)에서는 “那個饅頭, 我都吃了。(그 만두는 내가 다 먹었다.)”같은 문장은 다중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즉, 만두의 각 부분을 먹는 것이 각각 다른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는 이와는 달리 이 문장을 단일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都’의 다른 기능에 의해 드러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본고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다음 절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토론해 보자.

### 3. ‘都’의 망라성

#### 3.1 Zhang(2009): 망라성

Zhang(2009)에서는 배분성(distributivity) 자질 및 복수성(plurality) 자질과 차별을 이루는 형태-통사론적 자질인 망라성(exhaustivity) 자질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중국어의 ‘都’를 망라성 자질을 갖는 표지로 보았다. 그리고 이 주장의 근거로 다섯 가지를 들었다. 첫째,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都’의 양화 대상에는 복수명사구 뿐만 아니라 물질명사가 포함된다는 점이다(예문 (14)). 따라서 ‘都’가 복수성을 나타내는 표지라고 할 수 없다. 둘째, ‘都’의 양화 대상에는 단수명사구도 포함한다(예문 (15)). 따라서 ‘都’가 복수성과 배분성을 나타내는 표지라고 볼 수 없다. 셋째, ‘都’가 배분성 표지의 전형적 특성과는 달리 집단적 서술어와 공기할 수 있다(예문 (16)). 넷째, ‘都’가 집단적 부사와 함께 출현할 수도 있다(예문 (17)). 이 점 역시 ‘都’가 전형적 배분성 표지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섯째, ‘都’가 포함된 의문사-의문문에 대한 대답은 망라적이어야 한다(예문 (18)).

(14) 米飯都變餓了。<sup>7)</sup>

쌀밥이 다 쉬었다.

(15) 他把那張桌子都弄濕了。

그 사람이 그 책상을 다 적셨다.

7) 이 예문에서는 ‘都’가 ‘이미’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문은 중의성을 갖는다. 하지만 여기서는 ‘都’가 ‘米飯’을 양화하는 의미의 경우에만 주의한다.

- (16) 這些人都必須在操場集合。  
이 사람들은 다 반드시 운동장에 모여야 한다.
- (17) 他們都一起來了。  
그들이 다 함께 왔다.
- (18) 你都買了什麼?  
무엇무엇을 샀어요?  
a. 我買了蘋果, 西瓜和香蕉。  
사과, 수박, 바나나를 샀어요.  
b. #我買了一個蘋果。<sup>8)</sup>  
사과 한 개를 샀어요.

이러한 근거들은 우리가 앞 절에서 배분성의 문제를 언급했을 때의 것들과 비교하여 다섯 번째 것만 빼고는 모두 같다.<sup>9)</sup> 본고의 논의와 차이를 이루는 점은 Zhang(2009)에서는 ‘都’의 배분적 해석은 그것의 초점 표지 기능에 의해서 나오는 것일 뿐이므로, ‘都’는 배분성 자질을 갖는 것이기 보다는 망라성 자질을 갖는 것이라고 보았고, 본고는 ‘都’가 배분적 특성과 망라적 특성을 모두 갖고 있으며, 명사구의 수와 서술어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 예문에서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배분적 의미를 ‘都’의 망라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배분성은 ‘都’의 양화 현상에서 복수명사구에 적용 가능한 특성이 틀림없다. 따라서 본고는 배분성과 망라성이 병립하는 개념이며, 모두 ‘都’의 중요한 특성을 이룬다고 본다.

- (3) a. 他們都買了一本書。  
그들은 다 책 한 권을 샀다.

8) 이 예문은 문법상 적절한 표현이지만,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 부호를 붙였다.

9) 다섯 번째 근거에서 들고 있는 예문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각주 2)에서도 언급했듯이 ‘都’의 양화 대상이 의문사가 아니라 전체에 포함되는 개체들의 집합이라는 것이다. 이 개체들은 복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문은 배분적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예문이 ‘都’의 망라적 특성을 보여준다고 여기지 않는다.

### 3.2 측정가능성(measurability)

Zhang (2009)에 따르면, 복수와 단수는 가산성(countability)의 하위 개념이듯이, 망라성과 비망라성은 측정가능성(measurability)의 하위 개념이다. 즉, 어떤 개체가 측정 가능한 것이라야 다시 망라성이나 비망라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측정가능성의 개념은 Zhang(1997)에서 이미 제기되었다. 어떤 문장에서 사건성(eventuality)<sup>10)</sup>이 그 문장에 포함된 한 성분의 부분 집합에도 적용가능하다면, 그 성분은 그 사건성에 대해 측정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sup>11)</sup> 예를 들어 아래의 (17a)에서 책 전체를 읽는 것과 그 책의 부분을 읽는 것 모두 ‘읽는’ 것이다. 그러므로 책은 ‘읽는’ 사건성에 대해 측정 가능한 것이다. 반면 (17b)에서는 책 한 권을 빌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책의 일부를 빌리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때의 책은 ‘빌리는’ 사건성에 대해 측정가능하지가 않다.

- (17) a. 這本書, 我看了。 [+measurable]  
이 책은 내가 읽었다.  
b. 這本書, 我借了。 [-measurable]  
이 책은 내가 빌렸다.

이어서 Zhang은 ‘都’의 양화 대상이 서술어에 의해 표현되는 사건성(eventuality)에 대해 측정 가능한 개체라고 주장하였다.<sup>12)</sup> 즉, (17a)의 경우 ‘都’가 출현하여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17b)의 경우 ‘都’가 출현할 수 없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복수명사구 뿐만 아니라 단수명사구도 ‘都’의 양화 대상이 된다.

10) 여기서의 사건성은 Bach(1980)의 개념을 따른 것으로 사건(event process)과 상태(state)를 포괄하여 일컫는 것이다.(어떤 책에서는 ‘eventuality’를 ‘사건류’로 번역하기도 한다)

11) 원문은 다음과 같다. “If an eventuality still holds when it applies to a subset of an element, then the element is called measurable to the eventuality.” (Zhang 1997: 170)

12) Zhang(1997)에서 ‘都’의 양화 대상을 ‘都’의 선행사(antecedent) 혹은 인가자(licenser)라고 하였다.

### 3.3 측정가능성의 판정

본 연구는 Zhang의 측정가능성 여부를 좀 더 직관적이고 경험적인 방식으로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판정 기준은 2절에서 관찰한 사실을 응용한 것이다. ‘都’의 양화 대상은 서술어에 의해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관찰에서 우리는 전체-부분의 구조를 이용하여 양화 대상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 아래의 예를 보자. (18)에서는 전체인 ‘那本書’와 그 부분인 ‘一半’이 분리되어 나타나거나(a), 그 둘을 ‘有’를 사용하여 분리하거나(b), ‘방위사+的’의 표현으로 연결하였다(c). 이 모든 경우에서 문장은 정문이 되고, 따라서 만일 이 단수명사구를 ‘都’로 양화한다면 (2)에서 이미 보았듯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19)에서는 세 가지 표현 방식 모두 전체-부분의 관계로 나타낼 수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1b)에서 이미 보았듯이 이때의 ‘那本書’는 ‘都’의 양화 대상이 될 수 없다.

- (18) a. 那本書, 他看了一半。  
 그 책은 그가 반을 읽었다.  
 b. 那本書有一半, 他看了。  
 그 책에서 반을 그가 읽었다.  
 c. 那本書中的一半, 他看了。  
 그 책 중의 반을 그가 읽었다.
- (19) a. \*那本書, 他買了一半。  
 b. \*那本書有一半, 他買了。  
 c. \*那本書中的一半, 他買了。

이 기준은 단수명사구 이외에 복수명사구에도 적용이 되며, 집단적 서술어와 관련된 명사구 주어에도 적용이 된다. 예를 들어, (19)에서 서술어 ‘買’와 관련하여 단수명사구를 전체-부분의 구조로 나눌 수 없지만, 아래 (20)과 같이 복수명사구가 출현하는 경우는 전체-부분의 구조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때는 ‘都’가 출현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21)의 예에서 보여 주듯이, 집단적

서술어 역시 주어 명사구를 전체-부분의 구조로 표현할 수 있고<sup>13)</sup>, 따라서 이 명사구 역시 배분성과는 상관없이 ‘都’의 양화 대상이 될 수 있다.

- (20) a. 那些書, 他買了一半。  
 그 책들은 그가 반을 샀다.  
 b. 那些書有一半, 他買了。  
 그 책들에서 반을 그가 샀다.  
 c. 那些書中的一半, 他買了。  
 그 책들 중의 절반을 그가 샀다.
- (21) a. 他們有一半在一起。  
 그들은 절반이 함께 있다.  
 b. 他們中的一半在一起。  
 그들 중 절반이 함께 있다.

이렇게 전체-부분의 구조를 이용하여 판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이론적이기 보단 경험적이기 때문에, Zhang의 측정가능성과 비교하여 좀 더 단순하면서 직관적이다.

## 4. 맺는 말

이상의 토론에서 본 연구는 ‘都’의 양화 대상의 문제와 배분성의 문제를 살펴 보았다. ‘都’의 양화 대상에는 복수명사구 뿐만 아니라 단수명사구도 포함될 수 있는데, 복수명사구가 집단적 서술어와 결합한 경우에 배분적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관찰했고, 단수명사구의 경우에는 서술어의 의미에 의해 ‘都’와의 공기 여부가 결정되지만 설령 ‘都’와 함께 출현한다고 하더라도 배분적 해석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고는 ‘都’가 단지 배분적 특성만을

13) 이때 물론 부분은 복수라야 한다. 예를 들어 “\*他們有一個人在一起。”에서와 같이 부분이 단수명사구인 ‘一個人’일 경우에 문장은 비문이 된다.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 특성 외에 Zhang(2009)에서 주장한 망라성을 ‘都’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설명하였다. Zhang(2009)에서는 ‘都’를 망라성 표지로 간주하고 배분적 해석은 ‘都’의 초점 기능에서 나온다고 주장하였다. 본고는 이 연구가 기존의 배분성만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망라성 자체는 배분적 해석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都’의 망라성과 배분성은 병립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그 다음으로 Zhang(1997)에서 소개한 측정가능성의 개념을 소개하였다. 측정가능성은 어떤 명사구가 ‘都’의 양화 대상이 될 수 있는 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본고에서는 좀 더 직관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 參考文獻 >

蔣 巖(1998), < 語用推理與“都”的句法/語義特徵 >, 《現代外語》, 第1期.  
 蘭賓漢(1988), < 副詞“都”的語義及其對後面動詞的限制作用 >, 《語言教學與研究》, 第2期.  
 呂叔湘 等 編著(1980), 《現代漢語八百詞》, 北京: 商務印書館.  
 王 還(1983), < “All”與“都” >, 《語言教學與研究》, 第4期.  
 徐 杰(1985), < “都”類副詞的總括對象及其隱現, 位序 >, 《漢語學習》, 第2期.  
 趙元任(1980), 《中國話的文法》, 丁邦新 譯, 香港: 中文大學.  
 張誼生(2003), < 範圍副詞“都”的選擇限制 >, 《中國語文》, 第5期.  
 Bach. E(1980), On time, tense and aspect: an essay in English metaphysics. *Radical pragmatics*, ed. by P. Cole. Academic Press, New York.  
 Cheng, L.-S. Lisa(1995), On dou-quantification.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4.  
 Huang, Shizhe(1996), *Quantification and Predication in Mandarin Chinese: A Case Study of Dou*.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Li, Xiaoguang(1997), *Deriving distributivity in Mandarin Chines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Lin, Jo-Wang(1998), Distributivity in Chinese and Its Implications. *Natural Language Semantics* 6.

Shin, Joon-ho(2007), Topic-Focus Structure and Quantification of Dou ‘all’. *Taiwan Journal of Linguistics* 5.1.  
 Xu, ding(1997), *Functional Categories in Mandarin Chinese*. Holland Institute of Generative Linguistics. Netherlands.  
 Zhang, Ning(1997), *Syntactic Dependencies in Mandarin Chines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oronto.  
 Zhang, Ning(2009), Encoding Exhaustivity. *US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4, National Tsing Hua University (to appear).

< 中文提要 >

這篇文章主要討論“都”的分配特性和總括特性。漢語的“都”通常在句子裡充當分配的功能, 可是“都”只在跟複數名詞組共現時才會表現這種特性, 所以這種分配特性不能說明“都”的全貌。“都”所量化的對象包括複數名詞組和單數名詞組。複數名詞組跟集合性謂語結合時, 句子不會表達分配語義。單數名詞組可否跟“都”共現是按照謂語的語義而決定的, 但即使跟“都”一起出現, 也因為命題所表達的是單一事件, 所以句子不會表達分配語義。為了解釋這些現象, 本文接受Zhang(2009)所提出的“都”具有總括性的主張, 而說明單數名詞組的部分是透過“都”全部揭示出來。與Zhang不同之處在於本文堅持分配性和總括性並重。判斷什麼樣的名詞性成分可以作“都”所量化的對象也是這篇文章所談的主題之一。在本文提出的測試方式是用全體一部分關係的, 也就是說, 名詞性成分不管是單數或者是複數, 若可以和表部分的名詞組出現在一個句子裏, 就可以被“都”量化。這樣的測試是從經驗上的方式出發的, 所以很容易進行。

關鍵詞: 都, 分配, 總括, 全體一部分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09.2.26	2009.3.20	2009.4.1	2009.4.10	2009.4.30